

# 인문학 위기 시대 대화와 소통의 문학교육 :

중국현대문학의 대학 교육 현장 진단과 교수법 다변화  
모색에 대한 소고

고혜림\*, 박성혜\*\*

## 목 차

- I. 서론: 인문학 위기와 성행의 이원적 구조
- II. 중국현대문학 교육현장의 특성과 한계
- III. 대화와 소통의 문학 교육 지향
- IV. 소결

## 한글초록

인문학과 기초학문의 위기 시대에 대한 경고는 꽤 오랫동안 있어 왔다. 이 가운데서도 인문학은 순수학문의 영역에 계속 머무르면서 현실과 다소 괴리감이 느껴지는 듯 오해를 받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것은 인문학에게 주어지는 어쩔 수 없는 시대 변화적 도태로 받아들여야 하나 하는 의문이 들게 된다. 반면 대학 교육 현장의 중국현대문학 수강지는

\* 부산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제1저자)

\*\* 신라대학교 유아교육학과, 독서치료학과 교수 (교신저자)

한 해 한 해가 다르게 변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수자들은 기존의 구시대적 교수법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오래된 소위 ‘강의노트’를 견지하면서 변화된 대학생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대학 내에서의 중국현대문학 교육 현장에서 관찰되는 중국현대문학 유관 강좌에 대한 대학생들의 기초 인식에 대한 조사와 강좌를 수강함에 있어서의 수강자 입장의 한계점, 교수자 입장의 한계점을 우선적으로 진단한다. 이어서 현재의 중국현대문학 교육에 있어서의 교육의 보완점을 수강자와 교수자 각각의 입장에서 제안하면서 중국현대문학을 강의한 경험론적 바탕을 이 시점에서 함께 점검하고자 한다. 앞으로는 더욱 다변화되고 소통적인 방향으로 수강자들의 요구에 반응하고 학문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場)으로 문학 교육 현장이 변화하기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 주제어

대화, 소통, 중국현대문학, PBL수업, 플립러닝

## I. 서론: 인문학 위기와 성행의 이원적 구조

인문학의 위기에 관한 이야기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인문학 관련한 사회적 교육적 활동들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렇듯 위기와 성행이라는 이원적 구조는 어떻게 이해되어야 할 것인지 의문이 든다. 물론 인문학과 기초학문의 위기 시대에 대한 경고는 꽤 오랫동안 있어 왔다. 이 가운데서도 인문학 자체만을 두고 볼 때는 순수학문의 영역에 계속 머무르면서 현실과 다소 괴리감이 느껴지는 듯 오해를 받고 있기도 하다. 이는 청년들이 취업전선에서 체감하는 문

과계통 전공자의 취업난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많은 이유 가운데서도 주요하게 대중들의 마음속에는 인문학은 인간의 실생활과 직접 연결되기 어렵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과계통보다 등한시되거나 비실용적으로 취급되는 상황 역시 파생적으로 주어지는 굴레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인문학에게 주어지는 어쩔 수 없는 시대변화에 따른 도태의 수순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게 된다.

인문학토크, 인문학쇼와 같이 직접적으로 인문학을 내세운 방식 외에도 패션, 건축, 음악과 영화 예술, 여행, 경영, 비즈니스, 종교, 광고, 환경 문제에서도 인문학과의 협업은 일종의 트렌디한 유행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문학 열풍의 이면에는 전 대통령의 창조경제 건설이라는 정치의식도 한몫 했다는 분석<sup>1)</sup>도 있다. 정부의 예산 집행 부문에 있어서도 인문학 관련 지원 사업은 확대되었으며 관련 예산이 증액되는 것과 더불어 다양한 사업들이 신설되었다. 굵직하고 비교적 인지도가 높은 사업들 가운데 두 가지 정도를 예로 들자면 다음과 같다. 시도별로 도서관을 중심으로 개최되는 인문학 강연(도서관은 공간을 제공하고 대개의 경우 시도 내 인근 대학에서 교육을 담당), 국방부와 연계한 민간단체가 진행하는 병영독서코칭 프로그램(전국 단위로 강사 선발) 등이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모임과 교육의 형식으로 우리 사회 전체에 스며들었다.

신동순은 이렇게 인문학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인문학은 자본과 국가 권력에 의해 이화(異化)되어 왔다. 자본의 가치가 인간 가치보다 우위에 서서 군림하고, 돈과 기술이 인간을 재단하고 조롱한다. 인성이 파괴되고 인간의 가치가 하락하면서 세상의 중심에

1) 신동순, 2015, 「한국의 인문학 위기와 인문학의 대중화 담론 일고」, 『한중인문학포럼』, 제1권, p.272.

서야 하는 “人”은 수치화되고 계량화되어 가격으로 매겨지고 자본의 노예로 전락되고 있다. 돈이 부모 자식의 관계를 파괴하고 형제간의 불화를 만들며, 사제 간의 후안무치를 조장한다. 인간 사이에 폭력을 부채질하고, “人”의 인간됨의 삶을 농락하고 비웃는다. 인간은 인간임을 포기하고 인간되어짐을 경시하면서 정신적 줌비가 되어간다. 우리는 조작된 숫자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세상의 인식에 저항해야 한다. 그 저항의 근간에 인문학이 존재한다고.

대학 내 인문학의 위기를 외치는 일부 교수들은 민주주의의 퇴행적 만행을 그대로 목도하면서 그 속에서도 제 밥그릇 챙기기, 물 타기, 줄 서기를 하면서 말 그대로 “사회를 이끌어가는 참다운 지식인을 양성하는 신성성이 제거되고 불구가 되”<sup>2)</sup>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비판도 있다.

인문학의 위기와 부흥과 성행과 그 이면의 여러 사실들을 직면하자면 불편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분명한 것은 다음과 같은 부분이다. 안팎의 혼돈 상황 속에서도 주관기관과 교육 및 참여를 하는 주체들은 인문학의 효용성에 대해서 모두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의 인문학의 효용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기본 교양이자 수양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인문학을 문과의 영역으로, 어문학의 영역만으로 세분화시켜 협의적 개념으로 파악한다면 기능적인 의미의 한 분야로 여겨질 수 있다. 기타 학문을 하고자 하더라도 말과 글을 바탕으로 학문이 출발하기 때문에 인문학은 어찌면 말과 글을 사용할 줄만 안다면 다 되었다고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말과 글은 적시적소에 사용해야 하며 논리적인 배경을 가지고 뒷

2) 신동순, 2015, 「한국의 인문학 위기와 인문학의 대중화 담론 일고」, 『한중인문학포럼』, 제1권, p.273.

받침 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글로도 유사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는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인문학의 학습 목표가 입시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일정한 틀 안에서 정해진 방식으로 교육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대학 교육 현장에서 인문학이 어떻게 교육되고 학습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적인 경험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보다 집중적으로 대학교육에서의 인문학 중에서도 외국문학을 바탕으로 한 인문학 수업에서의 수강자와 교수자의 입장을 살펴보는 것으로 교육현장의 현실을 제시하고자 한다. 양자를 현시점에서 비교하면서 각자의 한계점과 보완점에 대한 제언을 함께 덧붙이고자 한다.

인문학 교수법 관련한 학술지 논문 가운데서는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인문학 교수법에 대한 강영돈(2018)<sup>3)</sup>의 연구나 하이퍼텍스트 쓰기를 활용한 인문학 교수법 연구에 대한 서경숙(2017)<sup>4)</sup>의 글을 보게 되면 인문학의 교수법도 다변화되고 있는 양상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중국현대문학과 문학교육 및 교수법 관련한 선행연구는 국내 학술지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반면 중국내에서의 한국문학 교육에 있어서의 문학작품 선별과 교수법 등에 관한 내용은 10여 편이 있을 뿐이나 이는 본고에서 살피고자 하는 한국 내 중국현대문학 교육의 상황과는 무관하므로 함께 다루지 않기로 한다.

3) 강영돈, 2015, 「멀티미디어기술 기반의 실험적 교육모델 제작을 통한 교양인문학 교수법 연구」, 『인문사회21』, 제9집2호, pp.15-23.

4) 서경숙, 2017, 「문학수업을 위한 디지털 인문학 교수법의 필요성과 실제-하이퍼텍스트 쓰기를 중심으로」, 『현대영어영문학』, 제61권4호, pp.167-186.

## II. 중국현대문학 교육 현장의 특성과 한계

중국어 관련 학과와 중어중문학과 관련 대학 교과과정 가운데서도 중국현대문학 교육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기초학문으로서의 인문학의 위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대학 교육 현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중국현대문학 수강자는 한 해 한 해가 다르게 변화된 모습으로 강좌를 수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수자들은 기존의 구시대적 교수법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오래된 소위 ‘강의노트(혹은 강의방식)’를 견지하면서 변화된 대학생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누군가의 말처럼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 교사가 21세기 학생을 가르치는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변화를 도모할 것인가가 드디어 화두가 되었다.

이에 여기서는 대학 내에서의 중국현대문학 교육 현장에서 관찰되는 중국현대문학 유관 강좌에 대한 대학생들의 기초적 인식에 대한 진단을 먼저 살펴보면서 한계점을 먼저 이해하도록 한다. 즉 강좌를 수강함에 있어서의 수강자 입장의 한계점, 교수자 입장의 한계점을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이어서 현재의 중국현대문학 교육에 있어서의 교육의 보완점을 수강자와 교수자 각각의 입장에서 제안하면서 중국현대문학의 대학 교육 현장을 함께 점검하고자 한다. 앞으로는 더욱 다변화되고 소통적인 방향으로 수강자들의 요구에 반응하고 학문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장(場)으로 문학 교육 현장이 변화하기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학부 대학생들의 중국현대문학에 대한 인상은 대개 중국어학으로부터 오는 습득의 어려움으로부터 출발한다. 대학마다 커리큘럼에 차이를 보일 수는 있으나 대개 1, 2학년의 교과과정을 지나고 나면 학생들은 전공 선택과 일반(자유)선택의 영역에서 문학 관련 수업을 선택

할 수 있다. 중어중문학과와 중국학 관련 학과의 학생들은 1~2년간의 중국어 학습을 바탕으로, 혹은 개인적인 어학능력을 바탕으로 수업을 선택한다. 수강자들의 문학 교육 선택에 있어서 본인들의 요구와 기대는 지난 6년간 사전에 이루어진 의견서 조사를 통해서 파악된 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종합되었다.

문학에 흥미를 느끼고 싶어서, 문학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중국어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서, 문학수업이니 글쓰기와 토론 능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 등이었다. 특히 중국문학 교육 과정에서 한자라는 높은 장벽 때문에 수강자들이 접근을 어려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에 흥미를 느끼고 싶어 한다는 점은 중요하다. 동시에 글쓰기, 토론 능력의 향상을 기대한다는 점도 고려되는데, 이는 여타 수업을 수강하면서도 대체로 접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사실상 수강자들이 체감하고 있는 교수법의 다양성 확보는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강자 입장의 한계점과 교수자 입장의 한계점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고에서 활용한 수강자들의 의견과 수업내용에 관한 자료는 관련 수업용도로 개설한 온라인 카페에 게시된 자료들을 활용했음을 미리 밝혀두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해당 수강자의 실명은 부분적으로 밝혀서 인용하였다.

## 1. 수강자 입장의 한계점

수강자 입장의 한계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 큰 문제는 언어이다. 그리고 해당 과목만을 수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전히 한 과목에서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도 없는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수강자들의 언어학습경험을 조사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 대학 1·2학년의 학과 어학 관련 과목을 수강한 이력이 전부라고 대답했고, 기타 초·중·고등학교 재학을 중국에서 했다거나 일부 외국어고등학교 졸업, 기타 개인과외로 중국어를 학습한 경우 등으로 다양했다. 하지만 이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강좌에서 동일한 텍스트를 가지고 동시에 수업을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많다. 각자의 어학능력을 바탕으로 텍스트를 읽어내는 시간이 필요한데 학생들 간에 큰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중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와서(김O우, 행정학과)”, “학과 대체 수업으로 들어야 하지만 중국어를 잘 못해서(황O지, 화학과)”와 같은 경우 두 학생의 중국어 수준은 격차가 매우 크다. 실제 수업에서 김O우 학생은 소설원문을 사전의 도움 없이 술술 읽어나갈 정도의 어학 능력이 되는 반면 황O지 학생의 경우는 한 문장을 읽는 데 있어서도 사전 단어를 대어섯 번 찾아야 하는 차이를 보였다.

두 번째는 중국문화와 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들 수 있다. 중국은 21세기에 들어서 세계적으로 G2로 더욱 주목을 받는 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이미 6년 전 여행자 기준으로 사실상 사드 문제 이전까지를 기준으로 가장 호황기를 살펴보자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중 중국인의 수가 사상 최대로 400만 명을 돌파한 기록도 있다(김종수, 2014). 한국과 중국 양국 간의 인적 교류와 상업적 교류가 급성장함에 따라 1992년 한중 수교 당시의 교역량은 2011년 기준 35배 넘게 증가하였고 한국의 교역대상국 1위로 중국이 부상하였다.<sup>5)</sup> 경제적으로도 매우 밀접해진 관계가 되었고, 문화교류의 차원에서도 한국의 콘텐츠 뿐만 아니라 중국의 콘텐츠와 IT산업들 역시 한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5) 대한상공회의소 편(2012), 통계로 본 한중 수교 20년, 대한상공회의소, p.136.



상황이다. 이로써 중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이해는 앞으로 사회로 진출을 준비 중인 대학생들에게 예전보다 더 강조되며 중국어를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자 측에서도 선호<sup>6)</sup>하게 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인식은 학생들도 기본적으로 있으나 정작 중국의 문화나 사회에 대한 기본 지식에 있어서는 그저 대중적 편견과 TV 등 대중매체에서 접할 수 있는 국제정치로 얽힌 문제에 등장하는 이슈에서의 중국에 관한 언급 이상을 말할 수 있는 수강자들의 비율은 높지 않았다. 김종수(2014)에 따르면 정치적 차원에서 접근한 상대국의 인식과 달리 한국인이 체감한 중국, 중국인의 형상을 다룬 연구들은 중국 여행기를 통해 접한 중국(인)의 이미지와 소설·영화와 같은 허구적 서사에서 재현된 중국(인) 이미지로 구분하여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7)</sup> 하지만 이런 대중적 인식의 바탕에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역시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이해가 몇 십 년 전보다는 훨씬 중요해졌다는 점, 그리고 대학 교육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수강자들 스스로가 본인

6) “삼성 차이나에 근무하는 총 인력은 2005년 5월 기준 49,082명으로 한국에서 파견된 주재원은 699명, 현지인은 49,383명으로 조사되었다. (...중략...) 특히 중국과 인도시장이 커감에 따라 삼성그룹은 중국과 인도전문 인력양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김승찬, 2007: 158) 2005년 통계자료만 보더라도 이미 중국과의 교류가 더 활발해진 지금과 앞으로의 시대에는 중국에 대한 전문가 수요의 증대를 예측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이해와 기본지식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가 점차 커진다고 볼 수 있다.

7) “한때 우리의 형님 나라였지만 사회주의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오늘날은 우리보다 몇 십 년은 뒤져 있다”(양희석, 2002)고 단정적으로 제시되거나 “체면치레를 중시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실속을 추구하는 사람들”(박용희, 2003)이라는 인상으로 집약된다. 이같은 이미지는 대국으로서의 중국과 천한 중국이라는 이분법적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의 한국(인)이 우월하다는 심리를 암묵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김종수, 2014, 「중국(인)을 바라보는 한국 대중의 시선에 관한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제42집, pp.144-145.

들이 중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중국이 성장할수록 우리는 중국의 문화와 생활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나라의 생활, 습관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킬 수 있고 정서적으로 교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전O현, 기계공학부)”, “저는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단순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저는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양한 지식을 쌓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송O진, 경제학부)”

실제 수업현장에서 토론 당시 수강자들의 의견 역시 중국에 대해 알고 싶지만 정작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할지 방향을 잡기 어렵다는 반응들이 학기마다 나타났다.

세 번째는 소비로 끝나는 문학수업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중국현 대소설책은 있지만 늘 읽은 것에서만 끝났습니다. 이 수업을 통해서 단지 책 내용에 대해 심화적으로 들어갈 뿐만 아니라 토론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나 제가 바라봤던 시각과는 다른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무척 기대되고 저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강O수, 중어중문학과)” 이 수강자의 의견에서 “늘 읽은 것에서만 끝났다”는 부분이 주목할 만하다. 독서활동 자체는 개인화된 행위이자 오락 행위의 일종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대학 교육현장에서 행해지는 독서활동은 강좌와 연결된 것이어야 하며, 개인화된 독서에서 끝나거나 번역을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하물며 유초등학생들의 독서나 책읽기에서도 독후 발문과 토론 소감나누기, 독후활동을 통한 이해를 글로 써보기 등의 기본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데 반해 오히려 대학에서는 이와 같은 활동들이 매우 적거나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서 문제가 있다.

수강자들은 대학 수업에서 심지어 ‘한 번도’ 토론을 해본 적이 없거나 ‘한번도’ 글쓰기과제를 해서 피드백<sup>8)</sup>을 받은 적이 없음을 토로 하곤 한다. 토론과 글쓰기는 교양필수교과목으로도 편성되어 있지만 이 강좌에서 실질적인 토론과 글쓰기란 과밀 수강인원과 적은 분반으로 인해서 매우 힘들게 진행되곤 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위와 같은 피치 못할 상황적이고 환경적인 조건에 의해서 토론, 글쓰기를 해보지 못했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적은 인원이 듣는 강좌를 수강했는데도 위와 같은 반응을 발표한 학생들은 한번도 제대로 된 토론과 글쓰기를 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는데 그렇다면 문제점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고민해보아야 한다.

외국어문학 수업에서의 문학 교육은 언어로부터 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항상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굳이 원문을 읽어야 하는지의 문제도 보다 유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 2. 교수자 입장의 한계점

교수자들 가운데는 수강자들과 소통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이는 특정한 상황에서 학생과의 의견조율이나 수업에 있어서의 강의와 다소 연관관계가 없는 돌발 질문을 받게 될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물론 수많은 학생들의 다른 의견들을 받아주기 시작하면 과연 그것이 어디까지 흘러가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불안이

---

8) 국내 글쓰기 피드백이 교육현장에서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적지 않다. 한 예로 박상민(2013: 143)의 글을 보면 “교육 현장에서의 글쓰기 활동은 다른 어떤 활동보다도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피드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먼저 자리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무엇보다 현 교수자 세대들이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혼자서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에 더 익숙하다는 점도 한 몫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강자들의 반응은 이렇게 반영되어 나타난다. “2학년 2학기 때까지 대학에서 수강했던 대부분의 과목은 교수님께서 강의 해주시고 학생들은 앉아서 수업을 듣기만 했는데 이 수업은 교수님과의 소통은 물론, 듣는 학생들과도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수업을 지루하지 않고 더 재밌게 배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강O수, 중어중문학과)” 제2외국어 수업 구안과 교수법에서는 설명하는 교수자(explainer)의 경우가 가장 21세기에 적합하지 않은 교수의 형태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드물게도 특수한 지식과 전공 영역의 강의는 물론 강의식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으나 결국 교육이라는 부분은 학습자에게 얼마나 교육이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는지 하는 부분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보다 소통적인 방식으로 교수법이 발전하고 연구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국 소통이 부재한 대학교육현장에서 보다 오랜 시간을 보낸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기 쉬워진다. 이는 “말하기에 자신이 없고 사람들 앞에서 의견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수업을 선택할 때 토론이 없고 교수님의 강의로만 수업이 이루어지는 수업을 선호하였습니다.(장O인, 중어중문학과)”와 같은 반응들이다. 이 학생의 경우도 ‘강의식’으로만 진행되어왔던 수업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고 토론식, 협업식 강의에 있어서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

물론 교수자들 가운데는 개인적인 교육경력에 있어서의 방법상, 혹은 개인적인 성향이나 성격상 의사소통이나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능동적이고 수용적인 성향과는 다소 거리가 멀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전임/비전임을 막론하고 교수자들의 교육적 역량과 개인적 성향 및 직업적성적합도 등의 척도는 한국 사회에서 대학의 교육

자로 활동하는 데 있어서 중대한 고려대상은 아니라는 것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

두 번째는 교수법 개발에 쏟는 노력 혹은 시간의 부족에 대한 점점 문제이다. 각 대학에는 교수법과 교수역량개발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매 학기마다 제공되고 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 역시 매번 참여자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며 새로운 교수법에 대한 호기심은 신진 강 의 자 들 에 게 더욱 인기가 있는 부분임에 틀림없다. 문제해결방식의 교수법 PBL(Problem Based Learning)<sup>9)</sup> 수업이 인기를 끌기도 했고, 실제로 교육현장에서 PBL방식의 수업은 학생들도 처음에는 적응이 힘들지만 점차 적응이 되고 나면 훨씬 능동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수법을 통해서 다양한 컴퓨터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온라인 학습을 동시에 진행하여 해당 강좌의 학습효과를 높인 경우나,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단순히 강의실에서만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미리 동영상을 통해 보고 온 학습내용을 강의실에서 교수자와 함께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는 방식 등이 등장했다.

교수학습개발 혹은 역량개발교육에서 제공되는 내용도 보다 실질적으로 바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확충되고 이런 부분을 교수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세 번째는 새로운 문학의 트렌드 인식에 대한 경직된 사고를 빨리 타파하고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 귀여니<sup>10)</sup>가 일으킨 열풍을

9) 중국현대문학 교육현장에서의 PBL적용사례분석에 관해서는 이시찬(2016)의 「PBL모델을 적용한 중국문학수업 사례 분석」을 참고. PBL수업은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며, 기존의 교육제도와 달리 쪼갤까 없는 학교로 만들 수 있는 수업방식”으로 EBS(교육패러다임 대기획, 공부의 재구성, PBL 수업이 학교를 바꾼다, 2016.2)에서 소개되었다.

10) “2003년 상반기 최대의 베스트셀러는 놀랍게도 18살짜리 아마추어 작가 귀

문학과 문화 연구자들은 아직 기억하고 있다. 필자는 당시 중국 상하이의 상무서국(商務書局)의 한 서가 전체가 귀여니(중국어 필명: 可愛淘) 번역서로 가득 차 있던 것을 기억한다. 중국현대문학에도 이와 같은 인터넷문학이 귀여니 열풍 전후로 붐을 일으켰으며 현재는 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를 등에 업고 영상으로 다시 제작되어 활황기를 누리고 구가하고 있다.

1992년 한중 수교 직후에는 시대적 한계로 인해 중국고대문학 교육이 중어중문학과와의 트렌디한 학문분야였다면 이제는 중국인터넷문학과 드라마 영상 등을 함께 다루면서도 중국문학을 논할 수 있도록 교수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한데도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있다. 중국현대문학 교육현장의 교수자들은 이와 같은 새로운 트렌드에도 빨리 변화하고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거나 혹은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도 있다.

### Ⅲ. 대화와 소통의 문학 교육 지향

#### 1. 수강자 입장의 보완

수강자 입장에서의 보완점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제안될 수 있

---

여니가 쓴 『그놈은 멋있었다』였다. 이 작품은 3월초에 출간된 이래 불과 몇 달만에 수십만 권의 판매 부수를 기록하였다. 성공에 자극 받아 최근 출판계에서는 10대나 20대 초반의 작가들이 창작한 수많은 인터넷 소설들이 봇물처럼 오프라인에서 출간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비단 문학판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관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0대와 20대 관객들의 이목을 끌기 위하여 영화판에서도 인터넷 소설을 영화로 만드는 데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김익곤, 2003, 「국어교육과 온라인 문학: 사이버 문학과 국어교육」, 『국어교육학연구』, 제17권, p.222.

다. 첫째, 언어적 한계로부터 오는 원문 해독의 시간차이 문제는 난이도별 작품선별을 골고루 하는 방법과 원문 및 번역본의 대조 과제를 수업 시간 이외에 별도로 수행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문학 번역과정에서 1차 번역 대상 언어가 2차 언어로 번역되면서 완벽한 직역이 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원문해독을 통한 문학작품 번역 및 글읽기와 번역된 작품을 읽고 소설 스토리를 파악한 후 작품 토론을 진행하는 것 중에 선택해야 한다면 부득이하게 후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원문해독의 과정은 부단한 어휘학습이 동반되어야 가능한 것이며 문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휘학습을 필수적으로 선행해야 하는 원문 번역에 치중하는 것보다 후자가 더 효율적이고 발전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수강자는 발췌된 일부 원문을 번역하는 연습을 병행할 수 있다. 번역된 작품이 있더라도 가능한 한 스스로 직역하는 연습을 일부분이라도 해보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중국문화에 대해 피상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수강자들이 많은 경우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하여 중국문화에 대한 부가과제를 제시(플립러닝의 방식도 선호될 수 있다)하거나 수업의 한 회차 정도는 문화와 사회에 대한 이해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교수계획표에 물론 이와 같은 부분을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음을 밝힐 필요도 있다. 필자가 스마트폰의 글쓰기 앱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한 학기의 경우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글쓰기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수강자는 수업게시판 혹은 온라인 카페 등의 장에 자료로 제시되는 문화관련 영상이나 글을 읽고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해당 분야의 전문가 팀티칭 혹은 특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을 따로 특강이 개최되는 곳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다. 수업시간이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인데, 이럴 경우 특강을 강의실로 가져오는 방식을 제안할 수 있다. 분야의 전문가에게 일부 시간을 팀티칭으로 활용하여 수강자들에게 제공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특강 및 팀티칭에서도 수강자들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미리 특강 자료를 일람해오는 등의 약간의 수고로움을 감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기 말 강의를 평가하는 자리에서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과제가 많고 해야 할 것이 많은 수업도 하나의 공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편하고 쉬운 수업만을 선호하는 요즘, 이런 수업도 있어야 진정한 대학 수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위O빈, 중어중문학과)”<sup>11)</sup>

## 2. 교수자 입장의 보완

이시찬(2016)의 강의설계에서 참고할 만한 부분은 수강생 전원이 예외 없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했다는 부분이다. 더불어 발표 주제는 중국문화전반으로 범주를 확장하면서도 제한을 크게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PBL 수업으로 진행할 경우 교수자의 수업 설계방식에서 학생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역량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전방위로 사회자이자 조연자 및 조력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역할을 자유자재로 교수자는 오갈 수 있어야 한다.

---

11) 위 학생의 반응에서 언급된 ‘진정한 대학 수업’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데, 단순한 주입식 혹은 강의식 교육이나 전문가의 일방적 교육방식이 아니라 ‘대학수업이라면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기대감과 이상이 21세기 학생들에게도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중고등학교에서 수학해 온 방식과는 달리 보다 전인적이고 소통적이고 대화적인 방식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와 수요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교수자는 이런 교수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스스로도 지속적인 발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이다.

첫 번째는 글읽기와 연계한 글쓰기 작업에 대한 피드백이다. 피드백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수 있다.

피드백의 개념은 다양한 학습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학생들의 학습목표, 학습과정, 평가 등 교수학습 전 영역에 걸쳐 제공되는 모든 형태의 교육적 행위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에 서는 그 범위를 축소하여, 피드백이란 교수학습 과정에서 평가 결과에 관한 정보제공을 통해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목표에 도달했는가 또는 도달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방향감을 가지도록 해주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학습해야 할 지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본다.<sup>12)</sup>

수강자들이 한 학기에 제출하는 과제는 다양하고 분량도 꽤 많다. 필자의 경우는 교수계획표상 문학의 글쓰기와 토론에 더 집중하고자 할 경우 중간/기말 고사 가운데 1회는 과제로 대체한다. 그럴 경우 한 학기당 문학작품 독후활동으로 진행하는 비평문 혹은 감상문은 4-6회, 중간고사 대체 과제 글쓰기 1회로 한 학기에 수강자 1인당 5-7회의 과제물이 제출된다. 수강자들은 본인의 글쓰기가 형편없다거나 실력이 좀처럼 늘지 않더라는 초기 반응을 보이지만 이럴 경우 피드백은 더욱 눈에 띄는 효과를 보여준다. 학생들의 글쓰기는 점차 향상되어 가는 것이다. 글을 쓰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교육과 가이드를 제시하면서 읽을 독자를 상상하도록 훈련하고, 글쓰기에 있어서의 직접적인 피드백을 5-7회 받게 되면 글쓰기가 나아지지 않을 수 없다.

12) 김형진, 2004, 「국어과 읽기 평가에서의 피드백 제시 전략 모형 개발」, 『독서연구』, 제11호, p.115.

글쓰기에서 피드백 활동은 주로 첨삭지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첨삭지도를 정점으로 하는 이전 활동과 이후 활동들의 체계적 연결이 뒷받침되어야만 많은 시간과 노고를 투입한 첨삭지도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박상민, 2013). 필자는 첨삭에 있어서는 네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다. 주제와 독창성, 내용의 논리성, 체제의 정확성, 표현의 명료성 등이 그것이며 이를 근거로 아래와 같은 예로 피드백을 하고 있다.

- a. 이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어색하므로 ~~하게 고쳐야 합니다.
- b. 한 편의 글에서의 기승전결과 흐름이 나타나도록 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 c. 글 전체의 제목이 내용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내용을 보았을 때 ~~로 수정하는 것은 어떨까요.
- d. 이 주제문은 구체적으로 작품에서의 내용을 근거로 뒷받침하는 문장이 없습니다.
- e. 내 생각이 아닌 것, 참고한 글 등은 인용을 서지사항에 맞추어 정확히 밝히도록 합니다.

위의 예들은 모두 구체적으로 글에서의 보완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분명하게 바로 피드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방향을 제시하였다. 글쓰기 능력은 단계적으로 향상되는 것이며 한 번에 모든 원인들을 지적하더라도 한 번에 고쳐지는 것은 아니다. 박상민(2007)의 말처럼, 실제로 학습자들이 수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들을 제시하는 것이 올바른 피드백이 될 것이다. 다음은 피드백을 통해 글쓰기(수업에서는 비평문으로 명명했음)에 있어서의 향상, 내면화 과정에서의 발전을 경험한 수강자들의 반응이다.

“개인적으로 이 수업을 통해 중국의 현대문학 흐름이나 중국현대소설 작품과 작가에 대한 학문적 지식도 늘릴 수 있었지만 그보다 더욱 크게 얻은 것은 ‘생각하는 습관’을 기른 것이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휩쓸리지 않고 또박또박 말하는 즉 내 주장을 밝히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작품을 읽고 비평문을 써가면서 느낀 것은 온전히 나만의 생각을 밝히기 위해서는 충분히 깊고 다양하게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전O진, 중어중문학과)”

“둥둥 떠다니는 생각들을 잡아 명료하고 보기 좋게 전달하는 것이 좋은 글쓰기라 생각한다. 처음 『경성지련(傾城之戀)』 비평문을 쓸 때는 전달하고픈 내용은 많은데 잘 연결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의 비평문 과제를 떠올리면 막막했다. 하지만 다섯 번의 비평문을 쓰고 나서 이제는 또 다른 책에도 비평문을 한번 더 써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비평문 과제를 하나하나 수행하면서 마냥 ‘글 좀 잘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만 하고 노력하지 않았던 나에 대해서는 반성이 된다.(송O주, 중어중문학과)” 위 두 학생의 반응을 참고하면, 피드백이 수강자들에게 직접적이고 발전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학생과의 소통적 문학 교수법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필자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들의 실제 수업 현장에서는 교수자가 학생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토론에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한다. 이런 부분은 교수자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학생들을 설득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부분이다. 오히려 자유롭고 개방된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서 동기부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수강자들은 기본적으로 교수자의 권위에 주눅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수자가 한 마디 하는 것에 대해서 더 긴장하거나 집중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여타 수업에서 그와 같은 분위기에

익숙한 수강자들도 함께 진행하는 학기 동안 변화를 보여주게 된다. 75분씩 주당 2회 진행되는 수업은 15주간 30회의 수업횟수로 계산되는데, 이 중 대략 10회 정도인 1/3 분량을 토론으로 할애하는 방식으로 수업 진행을 한다. 토론의 초반에는 학생들은 ‘잘 하고 싶다’거나 ‘교수자에게 인정받고 싶다’거나 ‘걱정된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학기 말 강의에 대한 소감을 나누는 평가서에는 ‘토론과 글쓰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거나 ‘소통하는 수업이었다’, 혹은 ‘자유로운 분위기’, ‘실제 문학과 저자를 느낄 수 있었던 수업’이라는 의견을 발표했다. 구체적인 반응은 다음과 같다.

“저는 수업시간의 토론 및 발표를 통해 저의 수업에 대한 애착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구요. 한 학기가 끝날 때쯤 무언가 얻어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많이 노력하고 싶습니다.(오○현, 중어중문학과)”

“교수계획표를 보면 발표, 토론 등 여러 가지 방면으로 교수님과 학생간의 교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토론에 있어서 완벽하지는 못하여 부족한 면이 있을 겁니다. 이럴 때 도와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김○우, 행정학과)”

“첫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학생들이 느끼는 부담감을 덜고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다는 느낌이 들어 좋았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결정을 학생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셔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부담 없이 토론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도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송○진, 경제학부)”

“지금 생각해보면 중국의 현대문학뿐만 아니라 고대문학도 이렇게 작품을 느껴보고 다른 사람과 그 느낌을 공유했다면 더 기억에도 오래 남고 좋지 않았을까 아쉽기도 하다. 이렇듯 토론을 할 수 있는 수업은 누구에게나 유익한 것 같다.(위○빈, 중어중문학과)”

물론 토론이 처음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필자는 토론문을 제시하는 방법을 7주차 정도 까지 활용하다가 점차 자율적인 토론으로 이루어지도록 독려하고 있다. 토론문의 구성은 해당 문학작품을 읽고서 저자의 핵심적인 사고 방식이나 문학적 배경을 묻는 질문-이런 질문들은 주로 해당 도서를 읽고서 토론할 수 있는 질문거리들로 발문에 해당됨-들을 3-4가지 정도 제시하고 나머지 1가지 정도는 모듈별 자율 주제로 토론을 하도록 유도한다.

대화와 소통의 능력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사회를 살아가는 지금, 그리고 그런 사회로 나아가야 하는 21세기 학생들에게 지금이라도 이처럼 대화와 소통의 경험을 줄 수 있는 교육현장이 문학 교육에서는 확대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새로운 교수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열린 마음이다. 서경숙(2017)<sup>13)</sup>은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디지털 인문학 연구소 개설이나 학제 개편 등을 통해서 디지털 인문학을 적극 수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짚어내면서 연구의 범위 역시 고대 역사 자료의 복원과 디지털 이미징화 및 3D 기술을 활용한 가상 고대 도시의 건설과 계몽주의 시대 학자들의 서신 교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지도 구축 등 다양한 방면에서 시도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동시에 한국의 인문학 자료는 단순 DB 구축과 검색 기능에 머무르고 있음을 한계로 파악하면서 교수법에서도 Microsoft PowerPoint, Prezi, TED, Youtube 동영상 활용 외에는 디지털 인문학 교수법의 활용이 미미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서경숙은 하이퍼텍스트 글쓰기와 관련한 대안을 교수법으로 적용하고 문학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넓히려 한

13) 서경숙, 2017, 「문학수업을 위한 디지털 인문학 교수법의 필요성과 실제-하이퍼텍스트 쓰기를 중심으로」, 『현대영어영문학』, 제61권4호, pp.168-169.

시도에 대해서 교수설계로부터 교수자의 노력과 공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교수자의 교수역량개발과 교수법연구는 단순히 자신의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보완이 되기 어려운 부분이다.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을 얼마나 타인에게 잘 전달하고 쉽게 가르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이다. AI의 시대에 계속해서 과거 유물과 같은 교수법을 고집하고 변화를 멀리할 것인가 고민해 볼 숙제다.

#### IV. 소결

이상에서 중국현대문학의 교육현장에서 관찰되는 문학교육의 현실에 대한 한계점 진단과 보완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중국현대문학 교육현장에서의 특성과 한계를 각기 수강자와 교수자의 입장에서 살펴보았다. 우선 수강자 입장의 한계점은 언어적 한계와 언어능력의 차이, 중국문화와 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 소비로 끝나는 문학 수업의 한계가 있었다. 교수자 입장의 한계점은 수강자와의 소통의 어려움, 교수법 개발에의 노력과 시간 부족, 새로운 문학의 트렌드 인식에 대한 경직된 사고 등이었다. 이에 본고에서 한계점에 따라 보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부분은 3장의 대화와 소통의 문학 교육 지향에서 주로 살피고, 역시 수강자와 교수자 입장에서 다루었다. 수강자 입장에서의 보완점은 난이도별 작품선별을 통한 원문해독 시간 절약과 발췌번역연습, 멀티미디어 자료를 활용한 중국문화 이해 관련 부가과제 수행, 분야의 전문가 팀티칭과 특강의 적극적 참여 등이었다. 교수자 입장에서의 보완점은 글읽기와 연계한 글쓰기 작업에

적극 피드백 하기, 소통적 문학 교수법을 적용할 수 있는 태도, 새로운 교수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열린 마음 등이다.

어쩌면 인문학의 위기 타개에 있어서 최근 국내에서 시도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여러 기업들과 부문들의 결과보고는 매우 순조로운 듯 보이는 일면이 있다. 그래서 교육현장 역시 매우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리고 더 이상 새로운 시도 없이도 하던 대로만 하면 잘 될 것이라고 믿고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인문학 교육의 장이 유범상, 이현숙(2015)의 주장과 같이 “순응과 수용의 교양”을 생산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으며, 최진석(2011)이 말하는 것처럼 “순응주의의 탓에 갇힌 채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노정하기보다는 기성의 서사를 공고히 하고 재생산하는 데 착취될 따름”일 수도 있다.

올해 시행된 강사법의 여파로 전국적으로 대학 교육 역시 위기 상황을 맞이했다. 대형 강좌의 확대, 수업 통폐합, 폐강강좌 수강 하한 인원 상향 조정, 전임 교수들의 담당 시수 증가, 예고 없는 수많은 대학비전임교수의 해고사태 등등 손꼽을 수 없는 수많은 문제점들로 인해서 사실상 대학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피해는 교육수혜자인 대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짊어지우는 상황이 되고 있다. 모두들 힘든 상황 속에 놓여있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의 수업에서도 30-40명 전후의 인원을 담당하면서 모든 강좌의 과제와 독후활동으로 이루어진 글쓰기에 피드백을 했던 일이 다분히 수월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수강자에게 돌아가는 교육적 효과가 무엇보다 크다는 것을 알기에 끊임없이 피드백을 하고 개인적인 첨삭과 의견을 덧붙여왔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50-60명 정도로 늘어난 강좌의 인원들 모두에게 이처럼 대화와 소통의 교수법,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하고 토론과 모둠활동, 강의자와 수

강자의 직접적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대해서도 앞으로 고민해야 하게 되었다.

입시와 대학입학이 모든 목표이자 결승점이었던 고등학교 교육과는 본질적으로 대학 교육은 달라야 한다. 그리고 대학 교육현장은 취업만을 목표로 달려가는 직업훈련소가 아니다. 대학생들이 사회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목표가 흔들리고 직업을 바꿔야 할 때 스스로를 제대로 살펴볼 줄 알고 도움이 되는 자료를 찾을 줄 알며 주변의 멘토를 찾아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새롭게 또 나만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생존능력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는 곳이다. 대학 교육현장마저 대화와 소통이 부재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면 앞으로의 사회에서 대화와 소통을 말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 참고문헌

- 강영돈, 2015, 「멀티미디어기술 기반의 실험적 교육모델 제작을 통한 교양인문학 교수법 연구」, 『인문사회21』, 제9집2호, pp.15-23.
- 김외곤, 2003, 「국어교육과 온라인 문화: 사이버 문학과 국어교육」, 『국어교육학연구』, 제17권, pp.219-241.
- 김중수, 2014, 「중국(인)을 바라보는 한국 대중의 시선에 관한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제42집, pp.140-161.
- 김형진, 2004, 「국어과 읽기 평가에서의 피드백 제시 전략 모형 개발」, 『독서연구』, 제11호, pp.113-140.
- 민춘기, 2015, 「뉴미디어 시대의 소통과 글쓰기에 대하여」, 『교양교육연구』, 제9권1호, pp.181-212.
- 박상민, 2013, 「교수·학습과정에서 글쓰기 피드백 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 『사고와표현』, 6권1호, pp.143-173.
- 박승찬, 2007, 「중국 비즈니스전문 인력의 수요실태와 향후 수급 전망: 중국 현지투자기업 설문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중국연구』, pp.155-185.
- 박용희, 2003, 「한국인의 중국문화인식: 여행기 분석을 중심으로」, 『문화관광연구』, 제5권1호, pp.151-167.
- 서경숙, 2017, 「문학수업을 위한 디지털 인문학 교수법의 필요성과 실제-하이퍼텍스트 쓰기를 중심으로」, 『현대영어영문학』, 제61권4호, pp.167-186.
- 신동순, 2015, 「한국의 인문학 위기와 인문학의 대중화 담론 일고」, 『한중인문학포럼』, 제1권, pp.272-280.
- 양희석, 2002, 「샤머니즘과 중국문예이론에 대한 시론」, 『중국어문학논집』, 제19집, pp.565-578.
- 유범상·이현숙, 2015, 「인문학 대중화에 대한 비판과 제언: 정부와 시민 사회의 두 인문학을 중심으로」, 『인문학논총』, 38호, pp.165-194.
- 이시찬, 2016, 「PBL 모델을 적용한 중국문학수업 사례 분석」, 『한국중문학회』, 제63집, pp.23-42.

차정미, 2017, 「한국인의 대중국 인식 변화와 그 요인: 힘, 이익, 정체성 변수의  
복합적 영향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제60권2호, pp.10-45.

최정임 · 장경원, 2015, 『PBL로 수업하기』, 서울: 학지사.

최진석 외, 2011, 『불온한 인문학-인문학과 싸우는 인문학』, 휴머니스트.

수강자 자료: [cafe.naver.com/ccclstudy](http://cafe.naver.com/ccclstudy)(중국현대문학, 영화, 문화연구 교수자료  
홈페이지, 검색일: 2019.08.10.~09.09.).

## Education of the Literature and Communication in the Age of the Crisis of Humanities

Koh Hye Lim(Department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lecturer, Pusan National University),

Park Seong Hye(Department of Bibliotherapy, Early Childhood  
Education professor, Silla University)

### Abstract

There have been warnings about the crisis era of humanities and basic studies for quite some time. Among them, humanities continue to remain in the realm of pure learning, and are misunderstood as if they are somewhat alienated from reality. Then it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it should be taken as an inevitable change in the times given to humanities. On the other hand, Chinese contemporary literature students at university education sites show different changes in the year. However, the reality is that some professors do not fully accept the changing demands of university students, either by following the old-fashioned teaching methods or by maintaining the old so-called lecture notes. In this regard, the present school will first diagnose the limitations of the admission of the students and the limitations of the professors' position in taking the course on the basic perception of Chinese modern literature related courses observed at the Chinese Modern Literature Education field in the university. In addition, I would like to examine the empirical basis of lectures on Chinese modern literature at this point, proposing complementary points of education of contemporary Chinese literatur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learners and professors. In

the future, we may expect the field of literature education to change to a venue where students can respond to their needs in a more diversified and communicative direction and provide their studies more effectively.

### Key Words

conversation, communication, Chinese modern and contemporary literature, PBL, Flipped Learning